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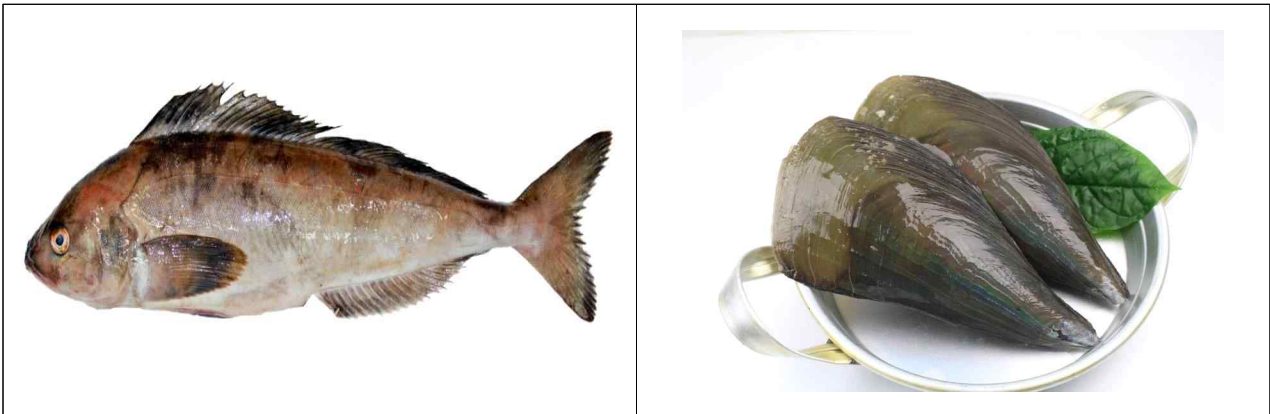
보도 일시	2022.4.1.(금) 조간 2022.3.31.(목) 11:00	배포 일시	2022. 3. 31.(목) 06:00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임연수어와 키조개를, ②해양생물로 왕거머리말을, ③등대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구항 하멜등대를, ④해양유물로 한국 해양대학교 졸업생의 제복을, 그리고 ⑤무인도서로 서해영토의 수호섬 직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임연수어, 키조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임연수어와 키조개를 선정했다.

‘임연수어’는 과거 함경북도에 사는 ‘임연수’라는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잘 잡아 왔는데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소금구이를 하거나 튀기면 껍질 맛이 일품이었다고 하여 ‘임연수가 낚은 물고기’라고 전해지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임연수어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봄철이 되면 살이 찌고 기름이 올라 맛이 가장 좋다.

제철 임연수어는 기름기가 많아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하고 치매 예방에 좋으며, 니아신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인 키조개는 곡식 껍질을 분리하는 농기구인 ‘키’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껍데기가 25~30cm 정도인데 다른 패류(조개류)에 비해 유난히 큰 것이 특징이다.

키조개는 조갯살을 먹기도 하지만, 주로 관자를 즐겨 먹는데, 쫄깃하고 단맛이 나는 관자는 구이, 스테이크, 샤브샤브 등의 다양한 요리로 입맛이 없는 봄철에 식욕을 돋게 한다. 또한, 키조개는 철분이 많아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타우린과 베타인류 성분이 풍부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나른한 봄날에 임연수어와 키조개로 입맛도 돋우고, 활력과 건강을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 왕거머리말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서식하며 해양생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왕거머리말’을 선정하였다.

거머리말과에 속하는 왕거머리말은 수심 약 9~15m 연안의 모래바닥에 서식하는 바다식물로, 그 길이는 약 50~80cm 정도이다. 바다 속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 혼치 않은데, 왕거머리말은 3~4월에 꽃가지가 생성되고 7~8월경 꽃을 피우는 희귀한 종이다.

왕거머리말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와 산란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오염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왕거머리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일부 연안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왕거머리말을 ‘준위협(Near-Threatened, NT)*’에 해당하는 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야생생물의 멸종위기 정도를 총 9단계로 평가한 지표(NT 등급은 9단계 중 4번째 등급에 해당)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왕거머리말은 오염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처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 라며, “해양보호생물인 왕거머리말 군락지를 지키기 위한 보호·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왕거머리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 여수 구항 방파제 하멜 등대



해양수산부는 4월의 등대로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 구항 방파제 하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5초마다 한 번씩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여수 구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이 등대는 우리에게 ‘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을 기념하여 ‘하멜 등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2004년 전라남도 여수시는 하멜기념사업과 연계해 하멜이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여수 동문동 일대를 ‘하멜로’로 지정하였고, 이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005년 여수해양공원 방파제 끝단에 등대를 세우고 ‘하멜 등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등대를 방문한 관광객은 하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담은 ‘하멜 전시관’과 하멜동상을 볼 수 있으며, 인근 자산공원과 돌산도를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돌산대교와 여수항의 화려한 야경도 만끽할 수 있다. 바로 옆 오동도에서는 붉은 동백꽃 군락지를 따라서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여수낭만포차거리에서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여수 밤바다를 즐긴 후 인근 횃집을 찾으면, 여수의 별미인 서대회, 샛서방고기로 불리는 군평선이, 여수 돌게장 등도 맛볼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고, 지난 3월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중리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준호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지난 3월 17일(금),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항로표지공학회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호미곶 등대’, 4월의 등대 ‘하멜 등대’ 등 우리의 아름다운 등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④ 이달의 해양유물 -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의 제복



1980년대 | 교복 48×79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이민중 기증

4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이 기증한 1980년대 한국해양대학교 제복과 학생증 등을 선정하였다.

기증유물은 기증자가 1988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에 입학하며 맞췄던 제복으로 상륙·외출 시에 착용했던 검정색 동정복, 흰색 하정복, 하약복과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을 하며 입었던 카키색 근무복까지 총 5벌이다. 제복과 함께 착용했던 학생모, 건장, 넥타이핀 및 학생증, 명찰, 상륙증 등도 같이 기증하였다. 학생증에는 외항선원을 꿈꾸며 입학한 신입생의 옛된 모습의 사진도 부착되어 있다.

기증자는 3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소장품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기증하였다. 기증된 유물들은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든 젊은 해양인들의 꿈과 노력이 깃든 해양자료로 의미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후손들이 해양인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유물을 잘 보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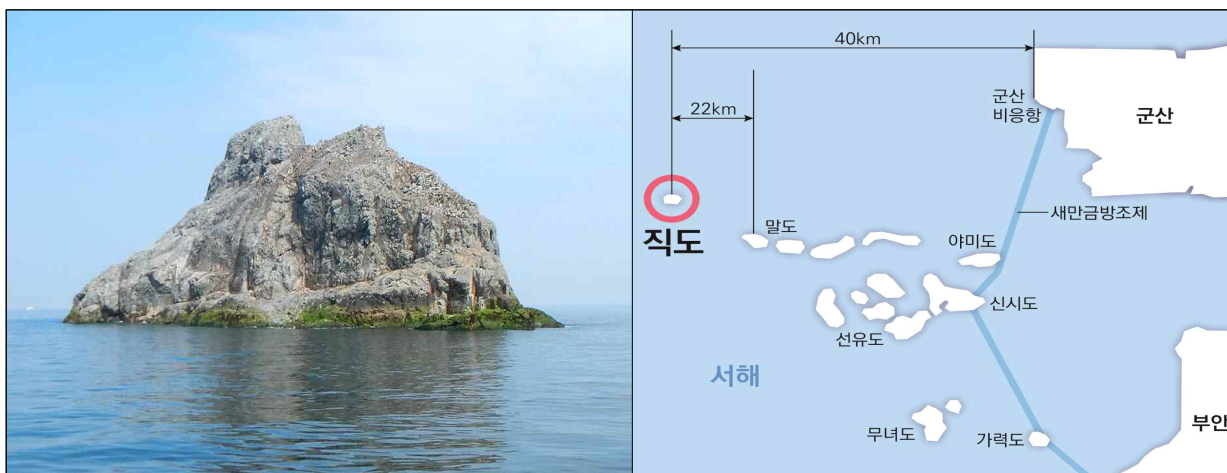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을 비롯한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 자료를 기증받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능허대 실경산수화’, ‘유리부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졸업생의 일기’, ‘돛’, 민영익의 휘호‘해옥(海屋)’, 빨배 등의 유물이 ‘이달의 해양유물’로 소개됐다.

‘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전적, 미술품과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책, 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⑤ 이달의 무인도서 - 서해영토의 수호섬, 직도



해양수산부는 4월의 무인도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직도를 선정하였다.

직도(直島)는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에 속한 섬으로 해발고도 20m, 면적 약 14,650㎡의 섬이다. 이 섬은 지역 주민들이 식물종인 피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섬이라고 해서, 피도 혹은 피엄이라고 부르는 큰섬과 그보다 작고 영해기점이 있는 소피도(또는 돌섬)로 구성되어 있다.

섬 전체가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야생 동식물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주변 해역의 강한 파랑으로 해안가에 해식애(절벽)가 잘 발달 되어 석회관갯지렁이류, 고랑따개비, 참굴 등이 관찰되며, 조간대에는 파래류와 불등풀가사리도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직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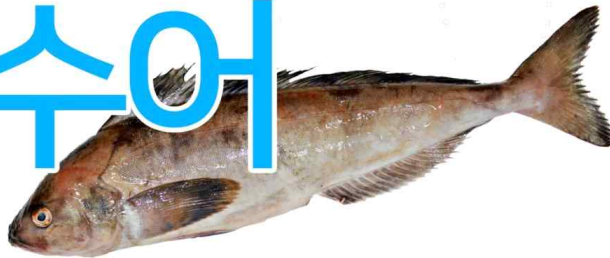
직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5447)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정식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4월
이달의 수산물

임연수어

atka mackerel



임연수어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단백질과 지방이다. 살코기는 전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단백질 밀도가 상당히 높으며 지방도 많아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팬에 구워낼 수 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기능 강화에 좋고 비타민B(니아신)과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다.

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152 kcal

수분

(Moisture)

71.5 g

지방

(Fat)

7.1 g

단백질

(Protein)

19.6 g

회분

(Ash)

1.3 g

칼슘

(Calcium)

13 mg

인

(Phosphorus)

231 mg

철

(Iron)

7.9 mg

EPA

(Eicosapentaenoic acid)

1,748 mg

니아신

(Niacin)

3.7 mg

비타민A

(Vitamin A)

23 µg

DHA

(Docosa hexaenoic acid)

1,305 mg

4월
이달의 수산물

키조개

Pen Shell



키조개는 곡식의 겉질을 분리해내는 농기구인 '키'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패류에 비해 껍데기가 25~30c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유난히 큰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조갯살, 관자를 구이, 샤브샤브 등의 다양한 요리로 즐겨먹는다.

키조개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타우린과 베타인류 성분이 풍부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출처: 국립수산물학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57 kcal	86.5 g	1.1 g	10.3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3 g	38 mg	128 mg	8.2 mg

류신	타우린	라이신	아르기닌
(Leucine)	(Taurine)	(Lysine)	(Arginine)
977 mg	994 mg	957 mg	1,125 mg

4월 이달의 수산물

바질 수밖에 없는 봄철 별미
임연수어, 키조개
더 알고싶어?



임연수어

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찢고
기름이 올라 고소하고 부드러운 임연수어
특히, 겹질 찜밥 맛이 일품이라,
꼭 먹어봐야 할 별미!

키조개

커다란 껍데기 속에
탱글하고 부드러운 살이 꽉 찬 키조개
전통 농기구인 키를 닮아 붙은 이름!
타우린, 칼슘, 철, 아연이 풍부한 고급 식재료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바닷속에서 피는 꽃

수심 약 9~15m 연안의 모래바닥에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는 왕거머리말은 해양생물들에게 소중한 쉼터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해양생물에게 은신처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광합성을 통해 생물에게 꼭 필요한 산소까지 공급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군락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준위협(Near-Threatened, NT)'에 해당하는 종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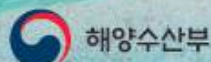
분포 및 생태적 특성

한국 동해안,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연안에서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와 경북 울진군 등의 연안 내 사질 퇴적환경에서 주로 서식한다. 바닷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은 흔치 않는데 왕거머리말은 수중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로, 개화시기는 7월~8월이다.



Zostera asiatica

우리가 보호해야 할 왕거머리말



2022년
04월
이달의 등대

해양수산부
보다 나온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청정해양세상



여수 밤바다를 품은 빛의 향연,

여수구항방파제 하멜등대

여수구항방파제하멜등대

여수는 하멜표류기로 유명한 헨드릭 하멜과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1653년 하멜이 탄 스페르웨르호가 제주도 부근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되었고 하멜은 월영에 의해 한국에 13년 동안 억류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 여수이다. 하멜은 1663년부터 1666년까지 4년간 여수 전라좌수영에 억류되어 있다가 1666년 9월, 일본으로 탈출해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여수에서는 하멜기념사업과 연계해 2004년 하멜의 근로현장으로 알려진 동문동 일대를 '하멜로'로 지정하였고, 2005년 하멜로 끝에 있는 여수구항 해양공원 방파제에 세워진 등대에 '여수구항방파제하멜등대'라고 이름 붙였다. 하멜등대는 10m 높이의 붉은색 무인등대로 2005년 1월 28일 최초 점등되었다. 하멜등대는 5초에 한 번 붉은색 불빛을 반짝이며, 광양항과 여수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책임지고 있다.

등대 인근에는 하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담은 하멜전시관과 높이 1.2m, 무게 140kg의 하멜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름에 세워진 하멜 동상과 같은 규모이다. 또한, 인근 오동도의 동백꽃 역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동도는 멀리서 보면 섬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섬 내에 오동나무도 많아 오동도라 불린다. 바다를 보면서 가볍게 산책하기 좋아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관광지

- 하멜전시관
- 거북선대교
- 이순신광장
- 여수해양공원
- 엑스포공원
- 여수 해상케이블카
- 남만포차거리



주변 먹거리_서대회 무침

납작하고 볼품없는 생김새인 서대는 여수 사람들과 미식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생선이다. 모든 생선이 그렇듯 회, 찜이나 구이로도 먹지만, 여수에서는 1년 이상 발효시킨 천연 식초와 초고추장, 온갖 채소를 넣은 서대회무침을 가장 즐겨 먹는다. 여수의 서대회무침이 특별한 것은 조상님의 전통 방식을 재현하고 있어서다. 여수 서대회무침은 비린내가 적고 새콤하고 담백한 맛이 뛰어나 잃었던 입맛을 돋워 주는 별미 중의 별미이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2.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2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 2019~2021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4월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의 교복



1980년대 | 교복 48x79cm 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이민중 기증

이달의 해양유물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이 기증한 1980년대 한국해양대학교 제복과 학생증 등을 선정하였다.

기증유물은 기증자가 1988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에 입학하며 맞췄던 제복이다. 기증된 제복은 상륙·외출시에 착용했던 검정색 동정복, 흰색 하정복, 하악복과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을 하며 입었던 카키색의 근무복까지 총 5벌이다. 제복과 함께 착용했던 학생모, 견장, 넥타이핀 및 학생증, 명찰, 상륙증 등도 기증하였다. 학생증에는 외항선원을 꿈꾸며 입학한 신입생의 옛된 모습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기증자는 3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소장품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기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 자료를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배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영도리 시청, 섬마을길 50-1

무인도서

2022년 04월

이달의 무인도서

2022년 4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직도(소피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8-2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관리번호 영해기점 20)이다.

군산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직도(소피도)는 해발고도 20m, 면적 약 14,650㎡의 섬이다. 지역 주민들은 피(식물)가 무성하게 자라는 섬이라고 해서, 큰 섬을 피도 혹은 파염이라고 부르며, 영해기점에 해당하는 작은 섬을 소피도 또는 돌섬이라고 부른다.

직도는 섬 전체가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부근 해역은 파랑이 매우 강해 대부분 해안에 해식애가 잘 발달되어 있다. 섬의 앞만 해안에서 석회관갯지렁이류, 고랑파개비, 참굴 등이 관찰되며, 조간대 앞만에는 파래류와 물동불가사리를 볼 수 있다.

직도는 영해기점으로 절대보전무인도서, 「군사기밀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출입이 불가하다. 다만,

<http://www.mof.go.kr>
<http://blog.naver.com/naeaeamof>
www.facebook.com/gg/mofnori/photos

주말에는 위치표시 및 무선통신 장치를 갖춘 경우에 주변 해역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직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목적은 해양영토의 주권수호와 과학적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함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직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